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5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회복·산업재편·의료 코로나 이후 국정 어떻게

오늘부터 이틀간 정책토론회

경제회복·산업재편·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 종합적으로 논의
기재위·국정과제위 등 발표·토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8일 공동으로 더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경제·산업·정치외교·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제안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 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정치 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논의에 앞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발전 밑그림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토론회 특별 강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대응성과, 연대·협력, 적극행정, 창의혁신이라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전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계파 대신 인물대결' 초선표심에 달렸다

여야 원내대표 경선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등 후보에 3선이상 중진의원들 출마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전해철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사령탑은 21대 국회 첫 개원과 함께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새 원내 사령탑 후보로 각각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7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 경선에는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이 출마했다. 통합당은 8일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주호영·권영세·이명수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치르는 여야 원내대표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초선 표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여야가 치른 원내대표 경선은 각 정당별 계파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당선인 163명 중 초선 의원은 68명이다. 비율로 따졌을 때 41.7%를 차지한다. 이에 민주당은 경선에 앞서 6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합동 토론회에서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초선 표심 잡기에 공을 쏟았다. 김태년 의원은 "관계 정치, 계파 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약실천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일하는 국회'에 대해 강조하면서 "초선 당선자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정책실현과 제도적 개선을 대표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성호 의원의 경우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초선들이 주눅 들지 않게 해야 한다. 각 의원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선 의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상황은 통합당도 다르지 않다. 6일 현재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이다. 이들의 성향은 친박(친박근혜계)과 비박(비박근혜계)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계파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입장도 '당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향으로 바꿨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당내 갈등을 의식한 행보다. /최영훈 기자

농식품 수출 3.8% 증가… 김치·라면이 견인

김치 수출 4510만 달러, 30.7% ⬆
라면은 1.94억 달러, 34.5% 증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진열된 농심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농심이 지난달 21일 영화 '기생충'의 주요 소재로 등장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자 하나의 용기면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했으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김치와 라면이 농식품 수출 효자 상품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물류 차질에도 불구하고 4월말 누계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23억80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 효자는 김치와 라면이었다. 우리나라 대표 품목인 김치는 그간 지속적으로 케이푸드페어(K-Food Fair)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통해 '김치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451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를 기록했다.

라면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온라인 판촉전과 영화 '기생충'과 연계한 마케팅, 소셜미디어·유튜브 방송 등을 활용한 조리법 소개 등으로 1억9400만 달러를 수출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5%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가정 내 소비가 많은 과자류, 소스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외식업체에서 소비가 많은 음료, 주류 수출은 줄었다.

국가별 농식품 수출을 보면, 미국·아세안·유럽연합(EU) 국가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일본·중국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김치, 음료, 라면, 곡류 조제품 등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35.3% 증가했고,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김치, 면류, 과자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각각 3.8%, 11.1% 씩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녹두·밤 3개 품목 선정

폐업지원금 대상에 돼지고기·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는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FTA 피해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돼 있다.

피해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특별법의 피해직불금 지급기준을 보면,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다. /한용수 기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17% 감소

한 때 피해 고사목이 218만그루까지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작년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 본(그루)을 전량 제거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로써 피해목 5만 그루 이상의 '극심지'는 울주군 1개 지역만 남았다. 피해목 3만그루~5만그루 미만의 '심' 지역은 전년 4곳에서 올해 제주도와 경주 2곳으로 줄었다. 다만 소규모 분산 발생이 늘고 있어 산림청은 예찰·예방 집중, 이동단속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 향후 방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 그루까지 크게 확산했으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 감소세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과 집중 방제기간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 그루를 포함해 감염 우려목 등 145만 그루를 제거했고,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간 공동방제, 방제 사업장 점검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을 해왔다. /한용수 기자